사찰 아닌 '문화원'서 부처님 만나요

수원 아리담문화원, 10월 3일 공식 개원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부처님 가르침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불교는 신앙을 넘어 심리학 · 윤리학적 가치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종교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써 포교하기 위한 공간이 탄생했다. 사찰이라는 개념서 벗어나 비불자들도 불교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름도 '절'이 아닌 '문화원'이다.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아리담문화원(원장 송탁)이 10월 3일 공식 개원했다. 점안의식, 개원법회, 문화공연 등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각성 스님, 조계종 호법부장 세영 스님, 재무부장 보경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을 비롯해 수원법조인불자연합회 등 재가불자 150여 명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법문에 나선 각성 스님은 "부처상을 점안하는 것은 조각상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부처님 지혜와 자비 덕성을 교감하겠다는 상징"이라며 "오늘이 바로 닫혀있던 가슴을 자비의 마음으로 여는 날이다.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행복하게 하는 큰 서원을 이루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아리담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뜻하는 '아리아 담마(ariya dhamma)'의 준말로, 교육 · 수행 · 치유 방법을 통해 불법을 전파하겠다는 송탁 스님 원력으로 시작됐다.

1998년~2009년 인도 뿌나 대학에서 불교심리학을 전공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송탁 스님은 평소 사람들이 불교를 쉽고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왔다. 스님은 "아리담문화원은 불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해진 규칙과 방법이 없다. 누구든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을 제안할 수 있고, 나는 사람들이 고귀한 삶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일 뿐"이라고 말했다.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아리담문화원(원장 송탁)이 10월 3일 공식 개원했다. 개원법회에 앞서 목조불상 점안의식이 진행됐다.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이 제작한 아리담문화원 목조상은 수령 800년~1200년 된 녹나무를 사용해 다른 화학처리 없이 그대로 조각됐다.

문화공연 등 150여 명 참석
국내최초 '녹나무' 목조불상도
원장 송탁 스님 "불교, 하나의 문화"
4월경 법조인법회 · 키즈농부 등 시작

실제로 아리담문화원은 지난 4월부터 신도들의 요청 또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 개설해왔다. 수원법조인불자회도 송탁 스님을 먼저 찾아와 법회를 제안했고, 그 후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문화원서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손수일 수원법조인불자회 고문은 "이 전에는 수원 일대 사찰들을 오가며 법회를 열었는데 문화원이란 공간이 생기니 회원들의 참여도 훨씬 활발해졌다"며 "스님께서 원시불교 등 교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매우 신선하다"고 흡족해했다.

아울러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었다. 불교경전을 통한 심리상담, 인성교육, 키즈농부 등이다.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시작하는 '키즈농부'는 기존 어린이법회 형식에서 벗어나 문화원 한 켠에 아이들이 직접 농작물을 키우며 텃밭을 가꾸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유해종(서울미아초6 · 남) 학생은 "다른 절에서 하는 일요법회랑 다르게 문화원에서는 배추, 고추 등 농작물을 직접 키우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재밌다"며 "명상 프로그램도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하니 훨씬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웃어보였다.

또한 이날 공식개관과 함께 '명상의 방'도 문을 열었다. 축하의 발길로 떠들썩한 1층을 지나 2층에 오르자 주황빛 조명의 작은 방이 자리했다. '입문(入門)'이라 적힌 방문을 열면 '무(無)와 상(常)'을 모티브로 그려진 그림 2점과 함께 박문정 음악가의 고요한 음악이 방안을 가득 메웠다. 학업 · 직장 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혼자 명상할 수 있도록 내어진 공간이다. 11월 30일까지 모두에게 개방되며 오전 6시~오후 10시 이용가능하다.

그림을 제공한 오숙진 작가는 "모든 것이 항상 하지 않다는 부처님 가르침인 무상(無常)을 마음에 새기면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강건해질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며 "소리와 그림, 빛이 어우러진 작은 방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되돌아보고 치유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리담문화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목조불상'이다.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이 제작한 목조상은 수령 800년~1200년 된 녹나무를 사용해 다른 화학처리 없이 그대로 조각했다. 제주도가 원산지인 녹나무는 향료, 방충제, 강심제 등 만드는 원료로 쓰이며, 잘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아 옛날부터 왕족의 관을 만드는데 주로 이용됐다. 일본에선 불상 등 신성한 물건을 만들 때 사용된다.

송탁 스님은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소재가 자연친화적인 '나무'일거란 생각에 목조상을 제작하게 됐다"면서 "벌레가 먹거나 혹은 날씨에 따라 나무가 변형되는 것 또한 자연의 이치다. 세상만물이 영원한 것 없이 항상 변화하듯 부처님 삶과 모습 자체도 마찬가지란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동국대, 불국사 창건설화 담은 '에듀-텔링' 앱 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황금돼지 금황이' 10월 6일 출시

동국대는 10월 6일 불국사 창건설화를 담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황금돼지 금황이'를 출시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원장 김정환)이 '대원불교문화기금'의 지원을 받아 문화원형 콘텐츠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작한 것이다.

'황금돼지 금황이'는 이무기로부터 불국사를 지켜내는 황금돼지 금황이의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닌 본인 스스로 지닌 가치'라는 교훈을 통해 아이들이 쉽게 자기인식과 자존감 등을 배울 수 있는 에듀-텔링(Edu-telling) 콘텐츠로 제작됐다. 또한 흥미진진한 애니메이션과 더불어 미니게임을 접목했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영숙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교수는 "전통과 스마트미디어의 만남으로 아이들에게 흥미와 동시에 불교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e-book을 만들게 됐다"며 "불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변화 및 유 · 아동의 흥미 유도를 통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동국대는 불국사 창건설화를 담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황금돼지 금황이'를 출시했다.

한편,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은 2011년 '사천왕 캐릭터 매뉴얼 북'을 만든 데 이어 2013년 '사천왕 틀린 그림찾기' 등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바 있다. 2014년에는 e-book '용궁에서 온 보물'을 출시하는 등 꾸준히 스마트콘텐츠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행 · 포교 소식

금강강독회, 법화경 강의 실시

매달 둘째 주 화요일… 10월 13일 개강

금강카페 금강강독회(회장 한창호)는 10월 13일부터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두산위브빌딩 9층 승우당서 〈법화경〉 강독을 실시한다. 이번 강독회는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를 강사로 2017년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매달 일정 챕터를 예습 후 합독 시간을 갖는다. 스스로 공부하며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강사와 질의 응답, 참석자 간 토론을 통해 습득한다.

교재는 홍정식 前동국대 교수의 〈법화경〉 번역본을 사용한다. 금강강독회는 교재에 대해 "여느 법화경 번역서와 달리 장황한 해설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권말에 수록된 사진들은 법화경 배경과 생성과정, 불교사상, 내용해설 등 본문 번역만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배광식 강사는 선학원 중앙선원 선정회장, 도봉산 광륜사 신도회장, 서울대교수불자회 회장,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전문위원 및 국제포교사회장 등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사)참수레 이사장이며, 금강강독회서 격주 수요일 저녁 7시 '영어능엄경'을 강의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가을 숲으로 '힐링여행' 떠나자

인드라망, 10월 23일~25일 귀정사 일대서 '숲 여행' 실시

단풍이 곱게 내리앉은 가을을 맞이해 인드라망생명공동체숲살림원이 불자들을 숲 여행으로 초대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숲살림원은 10월 23일~25일 남원시 산동면 귀정사 일대서 '10월 만행산 숲 · 치유 · 명상으로 초대'를 진행한다.

귀정사 및 만행산 숲 체험을 통해 현대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치유하고자 함이다.

프로그램은 △자연차 그리고 호흡 명상 △오감걷기, 침묵으로 만물과 온전한 일체되기 △물, 바람, 소리, 향기로 존재의 진실 깨우기 △자연에너지와 교감, 호흡하기 △깊은 밤 숲에서 우주와 삶의 근원 들여다보기 등 마련된다.

신청은 귀정사 홈페이지 및 이메일(lgs10259@naver.com), 전화로 할 수 있다. 참가비 20만원(단, 인드라망 회원 및 사회단체활동가 15만원). 문의 (063)626-0106

박아름 기자

"佛心모아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겠습니다"

공무원불자연합회, 10월 3일~4일 창립15주년 기념법회 봉행

공무원불자연합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새로이 불심을 다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서원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는 10월 3일~4일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서 창립15주년 기념 합동수계법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입재식에는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조충훈 순천시장을 비롯해 공불련 회원 및 가족 3백여 명이 함께했다.

법문에 나선 무상 스님은 "공무원 불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금이 바로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할 때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원한 마음으로 자신과 주위 모든 일에 밝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김상인 회장은 "공불련 회원 모두가 개인의 불심을 한데 모아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15주년 법회를 계기로 공불련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 다짐했다.

입재식에 이어 수련관 어린이법당에서 진행된 대의원총회서는 2016년도 사업계획안 등 논의했다. 공불련은 내년 주요사업 중 하나로 각 불자회 법회 운영, 지도법사 현황 등 조사를 실시한다. 송남출 간사는 "이를 통해 공불련 뿐만 아니라 전 불자회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도모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튿날에는 지난 6월 메르스 여파로 취소된 합동수계법회가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을 계사로 봉행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본조계종

원로위원 용 담. 지 연. 법 우
종 정 회 암
사서실장 중 현

총무원장 융호 수석부원장 산수 부원장 법전
고시원장 범산 법규원장 혜공 중앙선원장 보륜 문화원장 구달
감사원장 효현 복지원장 대경 호법원장 청암 교육원장 중무
법사원장 마생 포교원장 혜산 감찰원장 도문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혜철. 반야. 현덕. 정주. 인덕. 대공. 천묵. 현덕. 도일.
경담.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법향. 지환. 보호.
명진. 해련. 송현. 성무. 명덕. 무심. 도인. 청공. 마월.
독견. 덕용. 덕보

총무부장 도현 재무부장 정현 교무부장 경덕 사회부장 독성
복지부장 덕화 문화부장 자은 조직부장 무진 규정부장 석담
조사부장 광덕 호법부장 법장 포교부장 법묵 교육부장 법향

서울교구원장 무경 경기교구원장 진성 대전교구원장 법우
강원교구원장 정일 부산교구원장 도관 대구교구원장 대안
경북교구원장 무진 전남교구원장 법성 충남교구원장 여진
경남교구원장 경덕 전북교구원장 보명 전주교구원장 보현

고문변호사 김창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스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5번지 성라원 정안사
전화 02)3436-0796-7 팩스 02)745-1163